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박차

장수군, 별도관리 기간 부여·지도·점검·행정조치 등 추진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8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

여,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 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오는 3월 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은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지난해 이어 올해 잇따라 선정

무주군이 정부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관내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 국비 2억6,000만원을 확보, 모두 5억9,800여 만원을 투입, 관내 경로당 95개소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5억1,200만원(국비 2억 3,000만원)을 확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관내 경로당 6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마쳤다.

군은 올해의 경우 늦어도 5월까지의 실시계획 등을 마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전까지 경로당 9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선7기 황인홍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23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에너지 절감과 시설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부담을 해소해 노인복지 실현 및 전기료 절감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 나서

농식품가공창업반 교육 진행

무주군이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에 나섰다. 현재 농식품가공창업(기초)반 교육을 진행 중(3월 18일까지 총 9회, 36

시간)이며 관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업인들과 소규모 가공 창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식품트렌드와 식품공정을 통해 본 식품가공의 이해, ▲식품가공기술 소개, ▲HACCP의 이해, ▲식품개발 절차 및 상품화 프로

세스 ▲농산물 창업 및 가공 산업의 필요성,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농식품 마케팅, ▲농식품 포장개발 및 법적 표시기준, ▲농식품 창업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한다.

무주군은 교육 교재를 모두 우편으로 전달했으며 교육 진행은 호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체 전문가들이 맡아 기대를 키우고 있다. 기초반 교육을 7회(28시간) 이상 이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심화 실습반 교육도 진행한다.



무주군이 농식품가공창업(기초)반 비대면 교육을 진행 중이다.

가공 창업반 기초·심화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또는 반디퍼머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코로나19 집단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며 "노트북을 비롯해 휴대전화 등 매체와 장소 불문 수강이 가능한 만큼 교육생도 전년 대비 2배(40명)가 증가해 교육 효과에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지원부 정비 올해 말까지 완료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상태 등을 중점 파악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농업인의 일반 사항을 비롯해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을 등재하고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작성·관리한다.

작성 대상은 1,000㎡(시일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원부를 정비해 정비율 93.6%를 달성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만7,161건을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 점검 및 관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정신재활프로그램 '호응'

진안군은 '가정으로 찾아가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정신재활프로그램 참가가 유일한 외출이자 나이였던 대상자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자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아지

자 이용자들의 정서적 기능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강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1:1로 형태의 개별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첫 주 수업은 '카나페 만들기'로 대상자들은 선생님을 따라 조심조심 사과, 치즈 등을 썰어서 비스켓 위에 올

렸고, 예쁘게 만들어진 카나페를 보면서 크게 만족해했다.

대상자들은 요리 활동을 하며 "선생님 신나요, 행복해요, 감사해요"라며 연신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대상자인 진안을 A씨의 보호자는 "요즘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선생님이 집까지 오셔서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장수산림조합,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은 22일 장수군산림조합과 2021년 숲가꾸기 민관협력형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영세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경쟁 관계를 완화하며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 중이다.

장영수 장수군수와 한상대 산림조합장은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산주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사업발주 및 시행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지

도 및 점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수군은 전체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어린이무기꾸기사업) 200ha, 3억여원의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산림조합은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발주 및 관리 감독을 대행하게 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산림조합이 협력,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만 30세 이상 여성 유방암 무료 검진

무주군은 군민대상 2021년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30세 이상 여성 또는 위험인자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1년 1회)으로 무주군보건국의료원 건강 검진실에 접수·상담하면 문진표 작성, 영상의학 과 촬영, 위탁기관 판독 후 개별 결과 통보받게 된다.

무주군은 유소견자에 대해 상급병원에 진료·의뢰해 조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우리나라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의 조기 검진 및 발견을 통해 군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보건국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선화 팀장은 "유방암은 2기 이전에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69%에 달한다"며 "우리 군은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만 30대 이상 여성들, 또 가족력 등이 있거나 유방에 양성종양 진단을 받은 병력자 등은 꼭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직원 친절교육

진안군은 22일 군청 강당에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전화에 대한 응대요령 등 친절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등 비대면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인사말 등 전화 민원 응대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민원사무 담당자 위주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또한 실과소, 읍면 미 참석자는 정내방송 청취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해 민원 불친절 사례를 근절함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